

## <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>

1. 주님은 작은 데서 큰 데까지 사명자를 뽑으실 때 마치 용접할 때 땀 질하듯 쓰시려고 사명자를 뽑지 않으신다. 그의 몸으로 쓰시려고 뽑으신다.
2. 나 예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주관을 세우고 자기 경험으로 행하는 것이다. 이는 과시와 교만이다. (주편)
3.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나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나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. (주편)
4. 먼저 나 예수를 체험하고 가르쳐 주어라. 그리하여 그들도 나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을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여라. (주편)
5. 나 예수와 대화가 끊어진 때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때다. 사명에만 빠져 있지 말고 기도하여라. (주편)
6.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. 나 예수와 일체 된 삶을 살아라. 너희 생각에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. (주편)
7. 형제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예수와 먼저 통해야 된다. 하 나 되어야 한다. 외식도 형식도 안 된다. (주편)